광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팔 걷었다

공동상품권 발행·'장보기 날' 행사
주차장·진입로 등 시설 확충 총력

광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7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매월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시는 또 광산구 송정 5일장과 북구 운암시장 등 13개 재래시장에 주차장 조성·진입로 개설·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광주시는 추석절에 앞서 7억원 규모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다음달 1일부터 발행한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대인·남광주·양동복개·수산·닭전길·말바우·두암·운암·송정5일·송정매일·비아5일 시장 등 13곳이다.

상품권은 광주은행 전 지점과 재래시장 인근 농협·신협·새마을 금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5천원권 4만매, 1만원권 5만매다. 시는 공직자들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 구입을 권장하고, 지역기업체·YMCA 등 시민사회단체 등도 동참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상·격려·위문 등 각종 행사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정대규)와 함께 지난해부터 13억원 규모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90%를 판매했다.

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공직자 가족 및 여성 단체 재래시장 장보는 날'로 지정해 지난달 29일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 직원·북구 새마을부녀회원 등 530명이 쇼핑을 하는 등 최근까지 4회 1천750명이 재래시장 장보기에 참여했다.

◇시설 및 경영 현대화=북구 말바우 시장의 경우 올해 5억원 등 모두 47억원을 들여 주차장(120면)·화장실·고객 휴게실·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두암시장도 국비·지방비 등 14억원을 들여 점포 리모델링 중에 있다. 양동시장(10억)·양동복개상가(12억원)·운암시장(11억원)·송정시장(20억원) 등도 국비·지방비에 민자를 보태 아케이드와 차양막 설치·화장실 개보수·진입로 개설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재래시장은 상인 교육장 설치, 온라인 쇼핑몰 구축, 냉동·냉장 창고와 공동 작업장 설치, 홍보 이벤트 등 경영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말바우시장 조감도

광주공항에 울려퍼진 '요들송'

광주대 음악학부 예술동아리 '선율' 회원들이 3일 광주공항 대합실에서 '아리아', '요들송' 등을 부르며 공연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오는 6일 오전 남구 노인복지회관, 7일 광산 쌍암공원에서도 펼쳐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

〈전기전자장치〉

광주시·테크노파크, 2010년까지 149억원 투자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산업·전자산업 등 주력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조명시스템·소형모터 등 첨단 자동차용 전기전자장치(이하 전장)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광주시는 3일 "산업자원부가 광주시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 전장화 사업'을 올해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2010년까지 국비 95억원·시비 15억원·민자 39억원 등 모두 149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광·전자 산업을 융합해 ▲차세대 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자동차 조명 시스템▲소형모터▲자동차 퓨즈용 듀얼 게이지 등 기능부품 ▲경량 부품 가공 및 친환경 표면처리 부품 등 6개 차세대 부품 분야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제조공정과 기술혁신, 설계역량 강화, 마케팅, 공동협력 생산네트워크 등을 통해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를 경우 EV·NEV 배터리, 소프트 HEV용 배터리, 소형 트럭용 배터리 등 5건을 국산화하고, 자동차 조명시스템도 면광원 룰 라이트 등 10건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소형 모터와 퓨즈용 듀얼게이지 등 다른 전장부품도 10여건을 국산화해 지역부품 업체가 세계 부품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2011년까지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가 80여개 이상 늘어나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역내 부품 조달 비율도 22%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인 기아차 광주공장, 34개 1차 협력업체, 134개 2·3차 협력업체 등 모두 177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가로수 훼손 신고땐 보상금

市 '조성·관리 조례' 개정

광주시는 3일 문화도시에 걸맞은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도로 신설로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는 담당부서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고 ▲택지 개발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질 및 토양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시는 ▲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중에 조례안을 확정한 뒤, 9월 중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에는 이날 현재 은행 3만9천505 그루 ·느티 2만2천803 그루·이팝 6천517 그루·왕벚 5천733그루 등 모두 10만6천750 그루의 가로수가 조성돼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 당직변호사(4일)
  박도하 233-7571
- 법무사회 법률상담(4일)
  박환원 370-0600

신고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W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마을공동체 사업' 4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가 '2007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평가에서 동림동 '역사가 숨 쉬는 다리 조성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북구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4년에 이어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역사가 숨 쉬는 다리조성 사업'은 동림동의 용도 폐기된 구(舊) 산동교를 활용, 다리 아래로 흐르는 영산강의 모습을 담은 자연 및 문화 해설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잊혀져 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자연·역사문화 체험학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남구청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배치

8개 동사무소에도

광주시 남구청과 관내 8개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배치돼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남구청은 "장애인 등록자 및 장애인복지급여 수혜자가 많은 방림2동사무소 등 관내 8개 동과 남구청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배치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업무 행정보조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관내 저소득 장애인 9명은 지난달 28일 근무요령·친절교육·담당업무 기본교육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장애인복지행정 관련 보조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008년부터는 남구 전 동사무소 16곳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배치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대 '국가 연구실' 3개 과정 선정

각각 5년간 9억9,600만원~10억4,000만원 지원

전남대 김낙성·백명기·이동원 교수의 연구 과제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도 국가지정연구실 신규 지원 과제로 각각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분야 우수 연구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연구실을 선정해 최장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기존 5개의 국가지정연구실을 지닌 전남대는 이번 3개 연구실 신규 지정으로 모두 8개의 국가지정연구실을 갖게 됐다.

전남대는 3일 ▲김낙성 교수(의과대학 약리학교실)의'파골세포 조절 유전자 발굴 및 골질환 제어기술 개발' 연구 ▲백명기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부)의'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영양시스템 생물학 기술 개발'연구 ▲이동원 교수(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의'질량분석기가 집적화된 다기능 원자현미경 시스템 개발'연구가 2007년도 국가지정연구실 신규 지원 과제로 선정돼 각각 최장 5년간 9억9천600만원~10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